

차세대 '피겨 퀸' 유영, 청소년올림픽 1위 한국 선수 최초

김연아의 뒤를 이어 여자 피겨스케이팅 강국의 계보를 잇고 있는 유영(16)이 한국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동계청소년(Youth·유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장기인 트리플악셀과 고난도 점프 기술이 빛을 발했다.

1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유영은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0년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73.11점, 예술점수 67.38점으로 총점 140.49점을 기록했다. 유영은 지난 12일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73.51점을 더해 총점 214.00점으로 2위 크세니야 시니치나(200.03점)와 3위 안나 플로로바(187.72점·이상 러시아)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년을 시작으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한국 피겨 선수가 우승한 건 유영이 처음이다.

피겨 셋별 시절부터 고난도 점프에 강점이 있던 유영은 이날도 트리플악셀(공중 세 바퀴 반 회전) 등이 빛을 발했다. 첫 번째 연기에서 장기이자 가장 어려운 점프인 트리플악셀을 깨끗하게 성공시키며 점수를 쌓은 유영은 이후 트리플러츠-트리플투르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루프까지 마무리했다.

경기 후 유영은 "경기 전에 긴장했지만,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연기에 임했다."며 "한국에서 열린 대회가 끝난 뒤에도 쉽 없이 운동했는데 결과가 좋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 "베이징에서는 (4회전) 쿼드러플 점프를 뛰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차세대 피겨 유망주로 떠오른 유영은 2016년 한국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만 11세 나이로 한국 최연소 종합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유영은 2018년 대회에서도 1위에 오르며 김연아를 이을 가장 촉망받는 선수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 5일 막을 내린 한국 종합선수권대회에서도 1위, 3회 우승에 성공하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MLB, '사인 훔치기' 휴스턴 중징계

메이저리그 사무국(MLB)이 '사인 훔치기'로 논란이 된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로버트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이날 사무국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휴스턴에 대한 징계로 제프 르나우 단장과 AJ 힌치 감독에 대한 1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휴스턴 구단에는 벌금 500만 달러 부과와 2020·2021년 드래프트 1·2라운드 지명권 박탈 결정을 내렸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앞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징계 방식을 고려해 징계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실제 징계는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단장과 감독의 1년 자격정지는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

휴스턴 짐 크레인 구단주는 사무국의 징계가 발표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르나우 단장과 힌치 감독의 해고 사실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었다. 휴스턴은 2020시즌을 새 단장, 새 감독 체제로 치른다.

사무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는 단장, 감독보다는 당시 수석 코치였던 알렉

스 코라 현 보스턴 감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력분석실의 화면을 통해 상대 사인을 훔쳐 분석했고, 특정 구종에 대해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전달했다.

코라 감독이 '몸통'으로 지목됐지만 코라 감독에 대한 징계는 유보됐다. 사무국은 최근 드러난 2018년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에도 연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라 감독에 대한 징계는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조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에서는 사인 훔치기가 '관행'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사무국은 이례적인 중징계를 결정했다. 메이저리그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결정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스포츠 도박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이후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야구가 본격적으로 도박의 대상이 될 경우 '승부 조작' 등 야구 종목의 품격 위해 행위 발생 우려도 커진다. 메이저리그는 이 때문에 야구에 대한 베팅 금액의 1%를 야구의 품위 유지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든, 특정 구단 상대 5연속 40+점 ... NBA 최초

제임스 하든(31·휴스턴 로케츠)이 NBA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하든은 14일 테네시주 페덱스 포럼에서 열린 뎀 피스와의 2019-20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원정 경기에서 41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NBA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팀 상대 5경기 연속 40점 이상이란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전 기록은 명예의 전당 현역자 애드리안 뎀틀리(64)가 유타 재즈 소속으로 1980~1981년, 1981~1982년 2차례 달성한 특정구단 상대 4경기 연속 40점이다. 당시 뎀틀리는 생애 첫 NBA 득점왕에 오르는 등 최전성기였다.

하든은 이날 현재 최근 멤피스를 상대한 5경기에서 43-57-57-44-41득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하든은 이날 41점을 넣긴 했으나 야투 성공률은 35%(13/37), 3점 정확도는 26%(5/19)에 머물렀다.

승부처인 4쿼터에서는 5차례 야투를 하나도 넣지 못했다. 자유투(10/11) 덕분에 40점을 돌파하며 대기록은 세웠지만, 휴스턴은 이날 경기에서 110-121로 패하며 하든의 신기록이 빛을 바라는 모양새였다.

휴스턴은 이날 현재 2019-2020시즌 하든이 40점 이상을 넣은 16경기에서 14승 2패를 기록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